

“특하면 찌르고 주먹질... 무서워 못살겠어요”

버려진 ‘도시빈민’

(1) 영구임대 주민이 기록한 10개월간 사건 일지

이웃과 갈등... 위협 느끼기도

광주시 북구 A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살인·문자폭행 등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집단으로 모아 놓은 탓에 ‘빈곤촌’이라는 ‘낙인’마저 찍히면서 인근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파동림’마저 감수해야 한다. 자치단체·경찰 등의 ‘안전망’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는 도심 속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9월 1일, 20×동 1호에 사는 할머니가 2호 입주자를 고발, 2호 주민이 술안 마시면 욕하고 위협할 때면, 오늘도 (2호 주민이) 술 취한 상태에서 먹살을 잡고 망치를 휘두르며 할머니를 위협,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으나 2

호 가족은 물론 이웃 주민들은 도와 주지 않고 쳐다만 봄, 3호 주민이 2호 주민의 망치를 빼앗으면서 할머니 화를 면함.”

광주시 북구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위협·협박에 시달린 주민 A씨

의 메모 내용중 한 대목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이곳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적어놓았다.

사소한 이유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은 이후 신병의 위협을 느꼈던 A씨는 이곳에서 더 이상 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A4용지 6장 분량의 메모지엔 일부 인적사항을 제외한 사건 및 사건 내용·피해상황 등 일지 형식으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A씨가 지난 10개월간 기록한,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사건·사고만도 50건이 넘는다. 이를 증명하듯 취재 결과, 광주북부경찰은 하우에 두 차례 정도 이 아파트 단지에 출동하고 있으며, 119도 1년에 228건이나 출동하는 등 매일 경찰차와 119차량이 뒤엉켜 출동하는 경우

마저 있다. 메모지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을 까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떠는 주민들의 처절한 일상이 그대로 적혀 있다.

“4호에 사는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집기를 부수고 화장실 물건을 부순 뒤 고의 방화,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해 화재 진압 후 남성 후송함. 지난해 해에도 한 차례 방화한 적이 있었음.” (올해 1월 21일)

“5호에 사는 입주 여성이 층간 소음 피해를 호소, 5호 여성이 찾아가 항의하려 했으나 6호 주민은 문을 열어주지 않음. 5호 여성이 ‘아이들만 아니라면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소연.” (지난해 12월 21일)

“7호에 거주하는 장애인인 주민과 이 같은 문제로 원치않는 이사를 함. 이 사한 집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보조기

구가 필요하지만 7호에 설치된 보조기구를 포기하고 서둘러 원룸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듯.” (10월 8일)

“8호 아주머니가 상가 옆에 있는 9호 할머니의 머리채를 붙잡은 뒤 상가 벽면에 밀쳐 다치게 함. 119 구조대에 의해 후송됨.” (9월 4일)

“단지 내 정자에서 10호 주민이 누워 숨진 상태로 발견, 누군가 10호 주민이 맞아 죽었다고 얘기함. 일각에선 타살 의혹도 있다고 함.” (7월 9일)

A씨는 이 자료로 누군에게 또 다시 협박을 당하지 않을 까 조심스러워 했다.

A씨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이 같은 문제는 확대·재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4.5	내소 119호출, 직
-4.9	내소 119호출, 직
-5.3	내소 119호출, 직
-5.6	내소 119호출, 직
-5.13	유원정수장 응급세 파다부입
-5.25	14:30분경 내소 119호출, 직
-6.4	내소 119호출, 직
-7.9	내소 119호출, 직
-7.10	16시 30분 내소 119호출, 직
-7.11	내소 119호출, 직
-7.12	내소 119호출, 직
-7.27	내소 119호출, 직
-7.31	내소 119호출, 직

아파트 주민이 작성한 지난 10개월간의 사고 일지.

나원침 (8770) 김중두



임성훈 나주시장 영장 기각 檢, 재청구 여부 검토

산업단지 조성 비리 의혹을 받은 임성훈 나주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영장 전담 김준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 배임·뇌물수수 혐의로 임성훈에 대해 영장 기각한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함께 영장이 청구된 나주시 공무원 위모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10대가 훔친 차량 이용해 처벌이

○무안경찰은 훔친 차량으로 목포와 무안 일대를 돌며 차량을 탈러 한 혐의(특가법상 상습도둑 등)로 이모(18)군을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1월 26일 새벽 6시에 목포시 영산로의 박모(46)씨의 렌터카 사무실에서 승용차 열쇠를 훔쳐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달아난 뒤 쏘나타 차량에 설치된 GPS로 자신을 쫓아온 박씨를 들이받은 혐의.

○이군은 훔친 차로 무안읍의 아파트와 상가 주변을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이군의 여죄를 조사 중.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밀린 공사대금 못받은 50대 아파트 타워크레인에 목매

밀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괴로워하던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광주광역시 북구 A아파트 2시10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박모(55)씨가 높이 60m(15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목을 매 숨졌다. 박씨는 이날 새벽 2시에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죽어버리겠다”며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조대가 고가사다



‘독립만세운동 재연’ 수피아여고 9일 오전 광주 수피아여고 교정에서 열린 ‘독립만세운동 94주년 재연행사’에서 수피아여고 교직원과 학생 등 450명이 대형 태극기를 중심으로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천억 횡령 이홍하 보석취소” 檢 항고

“사안 중대” “이례적 사례” 항고 이유는 사안이 중대하고 모두 건강 상태가 구속을 감당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공범 3명은 이씨가 설립한 대학총장 김모씨와 교직원 등으로, 역시 건강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졌다. 보석 결정에 대해 검찰은 수사 및 재판차질 우려 등을 이유로 크게 불만을 표시했고, 서남대 일부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보석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양심불량 운전자들 노인 잇따라 치어 숨지게하고 목격자 행세 둘 검거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승용차 운전자·택시기사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해 차량 운전자들은 구호조차도 하지 않은 채 목격자 행세를 하는 ‘뻔뻔함’도 보였다. 목포경찰은 10일 승용차 운전자 황모(53·목포시 용해동)씨와 택시기사 김모(49·목포시 금화동)씨 등 2명

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일 새벽 5시20분께 목포시 산정동 차량등록사업소 앞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A기 일출·퇴근버스 운전기사 장모(70·목포시 연산동)씨를 치고 그대로 달

아난 혐의다. 또 택시기사인 김씨는 앞선 사고에 뒤이어 도로에 쓰러진 장씨를 피하지 못하고 20m 가량 치고 달아난 혐의다. 숨진 장씨는 출·퇴근버스 차고지로 가던 중이었다. 1차 사고를 낸 황씨는 현장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2차 사고를 지켜보고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 목격자 행세를 하다 승용차 좌측 범퍼가 손상된 것을 이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택시 운전자인 김씨도 승객을 태운 채 도망갔다가 사고 현장을 지나던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건강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펼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와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 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한한의원회 의료광고심의과 제120106-중-0819호 (광곡) 광주점 062-368-5075

www.indara.co.kr 광주점 6층(신세계대점사거리)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짝짝하고 눈알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알이 부어진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윗구멍이 걸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출판) 문의전화 062)383-3000